

예매 신기록 ‘기대’ vs 상영관 독점 ‘우려’

24일 문화의 날 개봉... 흥행 기폭제 SNS선 ‘예매 200만 달러자’ 움직임 매번 ‘마블 독점’... 비판의 목소리도

“곧 대한민국 모든 영화관이 ‘어벤져스:엔드게임’의 ‘관람권’로 바뀌겠지.” ‘어벤져스:엔드게임’(어벤져스4)의 예매율이 96.5%를 기록한 21일 오후 4시(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동일기준), 한 누리꾼이 SNS에 올린 글의 일부다. 24일 개봉을 앞두고 역대 사전 예매율은 물론 예매관객 기록마저 연일 갈아 치우는 상황에서 ‘마블 팬덤’으로 명명된 누리꾼들도 다양한 의견을 심 없이 쏟아내고 있다. 기록 경신 시도부터 한 편의 영화가 전국의 거의 모든 극장을 독점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교차한다. 영화계의 의견과 다르지 않다.

‘어벤져스4’의 사전 예매관객이 이날 157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극심한 극장 비수기 상황을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관객이 이 작품을 기다려왔는지 보여주는 기록이다. 마블 팬들은 SNS를 중심으로 “사전 예매관객 200만 명을 넘기자”



24일 개봉작 ‘어벤져스:엔드게임’의 조 루소·안소니 루소 감독과 주연배우 브리 라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제레미 러너.(왼쪽부터) 사진제공 | 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고 말하고 있다. “앞으로 절대 깨질 수 없는 기록을 만들자”며 중복 관람을 예약하는 ‘N자 예매’ 흐름까지 형성했다. 최근 내한한 케빈 파이가 마블스튜디오 대표가 “마블 10년의 집대성”이라고 밝혀 관심은 극대화됐다.

‘어벤져스4’의 개봉일인 24일은 마침 극장 관람료를 절반가량 할인해주는 문화의 날. 개봉작들이 흥행과 기선 제압을 위해 전략적으로 노리는 날이기도 하다. 저렴한 티켓 가격은 물론 90% 후반대 예매율을 고려할 때 ‘어벤져스4’의 개봉 당일 신기록 가능성이 크다.

‘어벤져스’ 시리즈의 저력은 여러 차례

일증됐다. 앞서 2편과 3편이 연속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점에 비춰 4편도 무리 없이 1000만 고지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더해 마블 팬들은 국내 개봉 역대 외화 최고 흥행작인 ‘아바타’(1333만 명)를 넘길 것이란 예측까지 내놓으면서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반응이 고조되는 한편에선 영화 한 편이 전국 극장의 대다수 상영관을 독점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매년 마블 시리즈가 개봉할 때마다 반복되는 비판의 목소리이지만 관객의 높은 기대감과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극장의 입장이 맞물려 딱히 현실적으로

개선할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마블 대작이 공개되는 시기를 어떻게든 피하려는 영화들의 움직임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24일은 물론 5월 첫 주까지 개봉 영화가 확 줄었다. 문화의 날 특수에도 24일 개봉작은 사실상 ‘어벤져스4’ 한 편 뿐이다. 어린이날과 대체휴일이 맞물린 5월 첫 주 역시 신하균·이광수의 ‘나의 특별한 형제’ 외엔 딱히 없다. 대신 ‘어벤져스4’ 흥행세가 찾아들 것으로 예상되는 5월 중순 이후부터 개봉일을 확정된 영화들 사이 흥행 경쟁이 한껏 달아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악인전’ 마동석, 칸 레드카펫 밟는다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
할리우드 진출도... 영화계 주목

마동석이 마침내 칸에 입성한다. 자신의 존재를 세계 영화계에 결정적으로 알린 칸 국제영화제에 영화 ‘악인전’이 초청되면서 처음으로 칸 레드카펫을 밟는다. 동시에 할리우드 진출 소식까지 알렸다.

마동석 주연의 범죄액션 ‘악인전’(감독 이원태)이 5월14일 프랑스 남부도시 칸에서 개막하는 제72회 칸 국제영화제의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됐다.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액션, 스릴러, 호러 등 장르영화를 상영하는 섹션이다.

마동석은 앞서 2016년 ‘부산행’으로 같은 부문에 초청돼 칸 현지에서 폭발적인 화제를 이끌어낸 주역이다. 하지만 당시 일정 탓에 현장에 가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세계 영화계 관계자들로부터 관심과 호기심을 받았다.

마동석의 존재를 처음 알린 ‘부산행’은 한국영화의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 상영을 꾸준히 이끈 ‘기록제’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2016년 티에리 프레모 칸 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부산행’



‘악인전’

은 역대 최고의 미드나잇 스크리닝”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2017년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과 ‘악녀’를, 지난해에 공작’을 이 부문에 초청했다.

이와 함께 매년 칸에서는 마동석의 인기 가 또 다른 측면에서 ‘증명’되고 있다. 주연 영화들이 2017년에 이어 2018년에도 영화제와 함께 열리는 필름마켓에서 뜨거

운 관심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시선은 ‘악인전’으로도 이어진다. 제작사 비에이엔터테인먼트는 21일 “3분가량의 예고편으로 104개국 선 판매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활동 무대를 세계로 넓히는 덕분에 마동석은 이제 ‘돈 리’라는 영어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린다. 그의 행보가 외신을 장식하는 경우도 잦아졌다. 칸 초청 소식과 맞물린 할리우드 진출 역시 미국 영화매체 더랩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

마동석은 2016년 하반기부터 마블스튜디오와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협업을 모색해 왔고 그 결실을 ‘이터널스’로 맺을 것으로 보인다.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하는 ‘이터널스’는 마블의 새 시리즈로, 불사의 종족과 악당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이해리 기자

‘가시나들’ ‘팬뽀걸즈’...다큐의 변신은 무죄

다큐 원작 예능·드라마들 쏟아져
무너진 장르 경계·이야기 힘 한몫

최근 다큐멘터리가 드라마·예능프로그램의 ‘원천 콘텐츠’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다큐멘터리를 원작으로 삼거나, 형식과 내용을 빌리는 프로그램이 늘어나 신선함을 자아낸다. 전문가들은 “사라진 장르의 벽” 덕분에 다큐멘터리의 ‘무한변신’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5월 초 방영 예정인 MBC 예능프로그램 ‘가시나들’은 2월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칠곡 가시나들’을 원작으로 한다. 연기자 문소리가 시골 할머니들의 한글 선생님이 되면서 내용은 영화와 똑 닮았다. 권성민 PD가 ‘칠곡 가시나들’의 김재환 감독에게 직접 제의해 성사된 ‘연작’의 결과물이다.

또 9일 첫 방송한 ‘회사 가기 싫어’는 허구의 설정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모큐멘터리 장르를 표방한다. 앞서 작년 12월 KBS 2TV가 방영한 ‘팬뽀걸즈’가 동명의 다큐멘터리를 드라마화한 작품이기도 했다. 1월 KBS 2TV ‘은밀하고 위대한 동물의 사생활’은 이하나, 김혜성 등 여러 연예인들이 다큐 PD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아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여러 장르의 연출자들이 다큐멘터리를 욕심내는 이유는 “이야기의 힘” 때문이다. ‘가시나들’ 권성민 PD는 21일 “다



KBS 2TV ‘회사 가기 싫어’

양한 상황을 설정해야 하는 예능프로그램이나 드라마보다 현실의 이야기가 더 극적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장르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흐름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도 있다. ‘회사 가기 싫어’의 조나온 PD는 “다큐멘터리 역시 기승전결을 갖춘 스토리가 중요하다”며 “본질적으로 두 장르가 다르지 않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연출된 실제 상황’에 더 이상 속지 않는 시청자들의 높아진 안목도 한몫했다. 권 PD는 “연출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예능프로그램에 다큐 형식을 엮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큐멘터리에 기반한 프로그램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토트넘)을 내세워 5월 방송하는 tvN 다큐예능 프로그램 ‘손세이셔널’이 대표적이다. 권성민 PD는 “익숙한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장르의 문법을 빌어오는 일이 점점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현장.jpg

상큼발랄 효연의 ‘하와이 나들이’

‘봄 햇살 담은 미소’ 걸그룹 소녀시대의 효연이 따사로운 봄을 담은 미소로 최근 한 패션지 화보 촬영에 나섰다. 화보 속에서 효연은 레이스가 통성한 오피 숄더 크롭탑과 다리 라인이 은은하게 비치는 스커트로 발랄함과 경쾌함을 동시에 잡았다. 하와이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즐기는 표정도 인상적이다. 금발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리는 것도 신경 쓰지 않은 채 포즈를 취하는 그의 얼굴에선 장난기마저 엿보인다.

사진제공 | 그라치아

#해시태그 컷



“블핑크” 월 스미스의 덕밍아웃

할리우드 스타 월 스미스가 걸그룹 블랙핑크의 ‘팬’을 자처했다. 월 스미스와 아내 제이더 핀켓 스미스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코첼라 페스티벌’에 참가한 블랙핑크를 만났다. 유쾌한 웃음으로 이들을 맞이한 월 스미스는 “나와 제이더는 공식적인 팬”이라고 밝혀 눈길을 모았다. 블랙핑크 멤버들도 월 스미스가 반가운 듯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팬들은 “월드스타들의 만남” “이 조합 신기하네” 등 반응을 드러냈다.

#스포츠동아 #월스미스 #블랙핑크 #월드스타의만남

홍종현 연하남 매력 뽐뽐 여성팬들 마음 살살 녹네



홍종현

연기자 홍종현이 여성 팬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KBS 2TV 주말드라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을 통해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매력을 공개하며 여성 시청자의 마음을 공략하고 있다. 올해 초 tvN ‘남자친구’ 박보검과 지난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정해인에 이어 ‘연하남’의 매력에 안방극장에서 토크한 셈이다.

극중 홍종현은 실력은 물론 외모까지 갖추고 상사에게 할 말은 하는 당당함을 지닌 신입사원 역을 연기하고 있다. 최근 상대역인 부장(김소연)에 대한 호감으로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아슬아슬하면서 풋풋한 감성을 시청자에 안기고 있다. 20일 방송에서 술에 취해 “나는 너를 정말 좋아하거든? 네가 정말 귀여워!”라고 말하는 장면은 많은 여성 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데 충분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홍종현은 모델로 활동하다 연기자로 데뷔한 직후 날카로운 눈매의 차가운 매력을 내세운 시크함으로 대중에게 자신을 알렸다. 앞서 출연한 MBC ‘왕은 사랑한다’와 SBS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등을 포함해 이전까지 출연작에서도 따뜻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드러낸 경험이 단 한 번도 없어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딸’을 통한 변신이 시청자에게 더욱 극적으로 다가가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를 통해 홍종현은 ‘남자친구’ 박보검과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정해인에 이어 풋풋하고 싱그러운 매력으로 다가가며 새로운 ‘연하남’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편집 | 김청조·김대진 기자